

三焦와 相火

경희대학교 조교수 박 찬 국

한의학에서는 歴史的으로도 三焦와 相火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게 있어왔다.

즉 三焦의 形이 있느냐 없느냐? 相火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이다.

첫째 三焦의 有形 無形論을 생각하여 본다면, 이 世界의 事物이 形이 있어야만 名이 있을 수는 없다. 즉 쉽게 생각하여 人間의 七情이 꼭 어떤 형이 있어서 우리가 그 存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仁이나 사랑을 그 形이 없어도 그 存在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三焦는 그 形이 없다고 하여 그 存在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 人體를 內觀해 볼진데 三焦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三焦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世上의 萬物이 生成과 消滅을 반복하고 있으며, 기실 고정불변한 것처럼 보이는 돌이나 금속도 활발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有形한 것과 無形한 것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며 무엇이 存在하고 있으며 무엇이 없는 것인지가 잘 분간이 아니 될 것이다. 단지 형을 가지고 存在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變化過程의 한 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六腑가 形이있고 三焦가 形이 없다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나아가 肝의 實質 臟器가 左脅下에 存在하고 腎이 兩腰背部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 肝과 腎이 전부가 아니라는 事實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大韓民國의 政府가 서울에 있고 美國의 首都가 워싱턴에 있다 하여 서울과 워싱턴이 한국, 미국의 全部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肝이 血을 藏한다 라는데 어디 꼭 實質臟器에만 血을 藏할수 있겠는가? 다만 腎은 精을 藏한다 하지만 어찌 그 腎에만 精을藏한다 말인가? 단지 자고 있던 魂을 일깨워 生動하게 하는 作用을 담당함을 肝이라 稱하고 人間의 精神氣血의 활동으로 맺어진 씨앗을 갈무리하는 기능을 腎이라 불렀을뿐이다.

즉 植物엔 肝도 肺도 아무 臟器도 없지만 여전히 시들었던 잎은 봄이 되면 다시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단지 우리는 보이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으면, 그 存在를 의심하고 또한 認識 하려하지 않는 속성이 있으나 단지 人體內에서 좀 더 肝의인 屬性이 偏重된 일부분을 肝이라 부르고 腎의인 屬性이 偏重된 腎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三焦는 人體內에서 어떠한 機能을 인식하여 도출해낸 것일까?

우리 人間은 自然이 이미 만들어 놓은 味를 흡수하고 여기에 天氣를 습하여 생성된 氣를 가지고 生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味와 氣를 흡수하여 우리가 쓸 수 있는 氣를 만들려면 먼저 그만한 노력, 즉 힘이 필요하게 된다. 즉 自然에 아무리 많은 氣가 있다 할지라도 무한정 우리가 이를 쓸 수는 없는것이다. 여기에 人間의인 努力이 加味될 때 우리에게 有用한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天賦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存在와 機能을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대개 精이라 부르고 있으며 특히 生命의 發源이 되는 것을 先天之精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先天의 精이 곧 그대로 人間적

인 노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 또한 적당한 變化를 겪어서 생성된 氣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과정은 곧 精이 氣化하는 것인데 이 때의 氣化 過程을 相火라 부르고, 이 때에 生成된 氣도 相火라 부르기도 한다. 즉 물질은 탈 때 氣가 發生되므로 精도 타서 氣가 生成되는 것이다. 이 때에 生成된 氣는 人體가 味와 氣를 吸收하고 또 體內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氣의 作用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自然의 天地人에 비추어 作用을 說明하여 三焦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즉 天이 氣를 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地에 쏟는 덕을 배풀고 있음을 본따 上焦라 이름하고, 地의 天에 順應하여 物을 갈무리하는 덕을 본따 下焦를 이름하고, 天地의 德으로 살되 天地의 長點을 取하여 天地의 公事를 돕고 있는 人間的 行爲를 본따 中焦를 이름 한 것이다. 즉 中焦에서 吸收된 味인 곧 地氣는 上焦에서 흡수된 天氣를 結合하여 血을 만들고 氣를 生成하여 上焦에 보내주면 上焦는 이를 全身에 分配하여 人의 生을 營衛하게 하며 下焦는 生을 영위하고 난 후의 氣血을 받아 精微로운 것은 精으로 만들어 갈무리하고 거친 것은 밖으로 버려 배설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더 부연설명 하고 싶은 것은 上焦에 올라간 氣血이 어떻게 下部에 위치하고 있는 腎 즉 下焦로 내려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먼저 天地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天의 氣가 일방적으로 地로 쏟아져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다. 天에서 쏟아져 내려온 氣는 일단 地에서 形에 간직되어 있다가 그 形이 다시 타서 氣가 되어 天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氣는 陽氣(君火)가 아니고 陰氣(相火)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뿐이다. 즉 이 때 相火가 發生될 때 地에는 陰厥이 생겨서 天의 氣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곧 地가 虛하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며 한 의학 에서도 腎이 實할 수 없다는 것도 곧 이와 같은 이야기다. 人體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下焦에서 相火가 發生할 때 생기는 陰厥으로 君火가 下降하고 氣血이 下降할수 있는 것이다.

相火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自然界에서는 물질이 타서 나오는 에너지라면 相火라 할 수 있으며, 君火는 太陽에 비견 할 수 있고, 人體內에서는 穀氣나 天氣를 吸收하여 생성 되는 營衛之氣 곧 우리가 視聽言動하며 體溫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君火이고, 氣血이 일단 精化되었다가 精이 다시 氣化되어 발생하는 氣는 相火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의 精氣는 곧 相火에 의하여 精에서 發生되는 것이다. 이 五臟의 精氣는 人體의 가장 기본적인 生理活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相火의 作用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